

濟州教案에 대한 一檢討

—소위 ‘三義士’의 활동을 중심으로—

朴 贊 殖*

1. 머 리 말

1901년 濟州島에서 일어났던 천주교도 피살사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사건의 한 단면만을 보았을 때, 그것은 ‘教難’으로도 ‘民亂’으로도 불리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국내적인 사건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大韓帝國과 프랑스와의 국제적인 외교사안으로까지 비화되었으므로, 포괄적 개념인 ‘教案’으로 통용되는 게 무난한 듯하다.¹⁾

지금까지 濟州教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져 왔다.²⁾ 제주교안은 舊韓末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교안이었고, 그 여파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미쳐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제주교안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고, 각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의 성질상 기록의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서술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분석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안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소홀히 취급되어져 왔다. 우선 당시 제주도민들이 봉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원인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반천주교적 운동 내지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민란지도부의 활동에 대해

* 濟州大學校 史學科

1) 『皇城新聞』에서도 이 사건을 ‘教案’으로 부르고 있는 게 확인된다.

“教案事로 處役하였던 大靜前郡守 蔡龜錫을 下送하니…”(光武 7. 10. 30, 雜報)

서도 그리 소상하게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제주교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란 참여자들의 입장은 소상히 밝혀지지 않아왔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입장이 다른 여러 자료에 대한 상호분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이어서 위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교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三義士’로 알려진 李在守·吳大鉉·姜遇伯 등 세 인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은 당시 민란의 시점에서는 狀頭로서, 전개과정에서는 民軍의 대장으로 활약함으로써 민란참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거의 인용되지 않았던 實記⁴⁾, 訴狀⁵⁾ 등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은 기존에 활용되었던 金允植의 일기⁶⁾, 보고서⁷⁾, 供草⁸⁾ 등과 더불어 민란참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제주교안에 관련된 논저는 다음과 같다.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迫害 — 1901년의 教難 — (『李丙熙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高宗治下 西學受難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2)

金泰能, 聖教亂(『濟州新聞』 1962. 10;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朴廣成, 1901年 濟州島 民亂의 原因에 대하여 — 辛丑 天主教 迫害 事件 — (『仁川教大論文集』 2, 1967)

金玉姬, 『濟州島辛丑年教難史』(太和出版社, 1980)

鄭鎭珪, 1901年 濟州民亂에 관한 一考 — 所謂 辛丑教難의 發生 原因을 中心으로 — (『韓國學論集』 3, 1983)

姜昌一, 1901年 濟州島民亂에 대하여 — 韓末 天主教의 性格과 關聯하여 — (미간행 논문, 1983)

이기석, 1901년 제주민란의 성격과 구조(『종교·인간·사회』, 1988)

金洋植,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濟州島研究』 6, 1989)

- 3) 물론 위의 姜昌一과 金洋植의 논문에서 이들의 입장에 충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본고와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 4) 金錫翼, 『天主教亂記』(1931)와 趙武彬, 『李在守實記』(大阪, 中島華文堂, 1932)를 말한다.
- 5) 「全羅南北道各郡訴狀」(『各司臚錄』 21, 全羅道篇 4, 國史編纂委員會, 1986)
- 6) 金允植, 『續陰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60)
- 7) 『全羅南北來案』(奎, 17982-1) 光武 5년 6월 2일, 濟州牧使李在護報告 第1號
- 8) 『官報』 1901년 10월 18일, 司法조.

2. 자료에 대하여

구한말 교안은 천주교의 교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발생한 천주교인과 지방관리, 토착주민 사이의 분쟁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우선 천주교는 <신자-신부-주교-프랑스공사>라는 조직체계를 통해 치외법권적으로 교안을 처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맞서 대한제국 정부는 <지역주민-지방관-정부>라는 체계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교안에 관련된 자료도 기록의 주체에 따라 상반되게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점은 다른 지역의 교안에서도 확인되지만, 제주교안만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인만큼 관련된 세력이 다양함으로써 관계자료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입장도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제주교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안 관련세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교회측의 인식으로서, 교회에 대한 관(토착지배세력 포함)과 도민의 탄압사건으로 바라보았다. 둘째, 대한제국 정부측의 인식으로서, 정부에서 파견한 擲稅官의 稅弊에 반발하여 봉기한 민란으로 파악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교회(선교사 및 교인)와 연결된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민란참여세력의 입장으로서, 봉세관의 세폐, 교회의 교폐에 항거한 정당한 봉기로 인식하였다. 특히 제주도 유림층의 경우에는 衛正斥邪적 의병운동으로까지 인식하였다. 넷째, 유배인 재야지식인, 외국인 등 제삼자의 객관적인 인식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따라 관련자료들을 분류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제주교안 관계자료 목록⁹⁾

〈자료〉 A (교회측)

a. Mutel의 문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① Lacrouts(具瑪瑟) 신부의 '濟州事件'(No. 56)

248 濟州島研究 8輯(1991)

- ② 선교사들의 서간 및 보고문서
 - ③ 濟州民亂에 對한 敎民緊急報告(제주-27)
 - ④ 濟州牧 大靜郡 各里亂民 作弊略抄(제주-69)
 - ⑤ 濟州民亂殺人者 姓名 居住列錄(제주-134.1)
 - ⑥ 濟州民亂時의 加害主動者列錄(제주-146)
 - ⑦ 濟州大靜郡私立商豫社 首魁及 三郡各里亂民狀頭姓名錄(제주-147)
 - ⑧ 濟州變亂 真相報告(제주-150)
 - b. Mutel 주교의 서간 '1901년 5월 제주도의 크리스찬들의 학살에 대하여'
 - c. Comptes-Rendu (『서울敎區年報』(I), 明洞天主敎會, 1984)
 - d. Mutel 일기
 - e. 『法案』2 (『舊韓國外交文書』20,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 f. 濟州事件에 관한 裁判實記 (I·II)
 - g. 崔善弘, <濟州島虐殺事件과 本堂沿革> (『카톨릭研究』1933.9·10월호)
- <자료> B (대한제국 정부측)
- a. 『全羅南北來案』(奎, 17982~1) 光武 5年 6月 2日, 濟州牧使李在巖報告 第1號
 - b. 『皇城新聞』
 - c. 『日新』(國史編纂委員會, 1983)
 - d. 『法案』2
- <자료> C (민란참여 세력측)
- a. 『訴狀』(奎, 18001) 五 (全羅南道濟州旌義大靜請願人李基箴等請願書)
 - b. <三郡都民等等狀>·<三部大小民人等等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1年度各領事館來信』,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 c. 『官報』1901年 10月 18日, 司法조
 - d. 金錫翼, 『天主教亂記』(1931)
 - e. 趙武彬, 『李在守實記』(大阪, 中島文華堂, 1932)
- <자료> D (제삼자측)
- a. 金允植, 『續陰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60)
 - b. 黃玟, 『梅泉野錄』
 - c.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1年度各領事館來信』
 - d. <濟州島天主教徒, 情態及同教徒損害賠償事件, 進行=關スル報告> (『韓國各地暴動雜件』, 日本 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
 - e. W.F셀즈 著, 김훈 譯, 『조선의 마지막 날』(未完, 1986)

이들 자료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민란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특히 『天主教亂記』(이하 『란기』로 부름)와 『李在守實

記』(이하 『실기』로 부름)는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이재수를 비롯한 ‘삼의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안의 실상을 서술하고 있다. 우선 『란기』는 제주도 유학자이면서 향토사학자이기도 한 心齋 金錫翼(1885~1956)¹⁰⁾의 저술로서, 여타 자료와 비교하여도 오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만큼 그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란기』는 1931년 5월에 씌어진 것으로서, 김석익이 이전부터 수집하였던 자료들을 기본으로 삼은 데다가 이재수의 누이인 李順玉의 증언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¹¹⁾ 기존의 연구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재수의 민란 참여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다음으로 『실기』(1932. 1)는 일본 大阪에 거주하였던 제주 출신의 趙武彬¹²⁾이 기록한 것으로서, 이순옥의 구술을 바탕으로 하여 전기문 형식으로 엮여졌다.¹³⁾ 구술을 기본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란기』

10) 金錫翼은 濟州 태생으로서 본관은 光山이고, 자는 允敬 호는 心齋·一笑道人·海上佚史 등을 썼다. 그는 1900년에 제주도에 유배와 있던 我石 李容鎬에게 사사하였으며, 1905년에는 호남 유학자인 松沙 奇宇萬에게서 배웠다. 그는 문학·역사 방면, 특히 제주도 역사와 관련된 많은 저술을 남겼다(『心齋集』, 圖書出版 濟州文化, 1990 참조)

11) 『란기』의 서문에 그 저술 동기가 적혀 있다.

“有李順玉女史 即(李)在守之妹也 謁余 于豐城旅寓 日生長閨門 安知大義 然嘗 觀天有名無實之牧使郡守尚有頌德之碑 以若吾兄之斥邪扶正爲民除害 其無一篇傳記 豈非冤枉乎哉 是實當世君子之恥也 願先生 盍爲余而述之 噫 余以異域 漂蹤焚筆硯 已久矣 然余於三義士之事 所嘗稱述而 慨歎者 則亦島得以終辭綴綴 其顛末而記之”

즉, 이재수의 누이가 김석익을 찾아와서 이재수의 전기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게 계기가 되어 이전에 저술하였던 것과 몇 가지 자료를 보강하여 『란기』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란기』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第一 朝鮮末의 政治와 天主教의 由來及勢力
- 第二 李在守의 舉義와 天主教徒의 殲滅
- 第三 佛艦의 來倭과 官軍의 膺懲
- 第四 李在守의 最後와 天主教亂의 影響

12) 조무빈은 제주도 翰京面 樂泉里 태생으로서 일본 大阪市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13) 『실기』도 『란기』와 마찬가지로 이재수의 누이인 이순옥의 부탁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참고로 목차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李在守의 產出과 그의 氣勢
- 李朝末葉의 政治와 天主教徒의 橫暴
- 李在守의 義舉와 天主教의 殲滅

와는 다른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재수의 출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三義士'의 출신과 활동

1) '三義士'의 출신

종래 이재수·오대현·강우백 등 제주교안의 민란지도자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단편적인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란기』와 『실기』 등의 새로운 자료와 이들의 거주 지역에 남아 있는 古文書 등을 통하여 그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재수(1877~1901)는 제주도 大靜郡 仁城里에서 父 李時俊과 母 宋氏 사이에서 태어났다.¹⁴⁾ 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는 어릴 때부터 군사놀이를 즐겼고, 불의의 일을 보면 참지 못했다고 『실기』는 전하고 있다. 그는 주교안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정군 관아의 官隸로서 郡守인 蔡龜錫을 수행하고 있었다¹⁶⁾ 비록 관에라고는 하지만, 그다지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즉, 그가 인성리의 里綱¹⁷⁾이었다든지, 商務社의 執事¹⁸⁾였다든지 하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후에 민군의 대장으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대현 (?~1901)은 일명 乙吉이라고도 하였는데, 대정군 狽來

瀛州十景歌

佛鑑의 來倭과 官軍의 績歴

李在守等 三義士의 上京裁判事實

14) 『실기』 참조.

15) “리시준은근본재산은 넉넉치못하나 가정의 환락한생활로 그날그날 자미스럽게 지내던터이다”(『실기』).

“在水の家勢는 勿論微賤한집이라”(『란기』)

16) “이세(1901년 봄 一월자 주)在守는 大靜郡衙官隸로…”(『란기』)

한편 「濟州大靜郡私立商務社 首魁及 三郡各里亂民狀頭姓名錄」(위텔문서, 제주-147)에는 官奴로 기재되어 있다.

17) 『官報』 1901년 10월 18일, 司法조.

18)

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마을의 유력자로서, 대정군 鄉長(座首)의 지위에 있었다.¹⁹⁾ 또한 채구석과 함께 상무사의 대표(明社長)를 맡아서²⁰⁾ 향촌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민란이 발생하기 직전에 주민들에 의해서 呈訴운동의 대표자, 즉 장두로 나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우백(1852~1901)은 일명 五百으로서, 대정군 河源理에서 출생하였지만 주로 인근 月坪理에서 거주하였다. 그의 부친은 姜時陽으로서 掌議를 지냈고, 그 또한 장의의 직에 있었다.²¹⁾ 그는 제주교안 당시에는 월평리 里綱과 상무사 사원을 맡을 만큼²²⁾ 향촌의 유력한 지위에 있는 자였다. 또한 그는 1898년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房星七의 난²³⁾에 주도 인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 민란 주도의 전력 등으로 말미암아 그는 쉽게 주민들에 의해 민군의 대장으로 추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三義士'의 활동

종래 제주교안과 관련하여 많이 거론되었던 사건은 1901년 2월(양력 : 이하 같음) 旌義郡 教堂에서 있었던 吳信洛(千摠)의 捉囚致死 사건이다.²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서도 교회와 토착주민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대정군에서는 반천주교적 자위조직인 상무사가 대정군수 채구석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제주교안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⁵⁾ 그러

19) 주 17)과 같음.

20) 주 16)의 「商務社姓名錄」 참조.

21) 月坪里 戶口單子(제주도 서귀포시 貌來洞 姜昌龍氏 소장) 참조.

22) 위의 『관보』와 「상무사성명록」 참조.

23) 조성윤,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6) 참조.

24) 『續陰晴史』 光武 5년 2월 22일조 참조.

25) 제주교안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교안의 원인과 발단일 것이다. 제반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주교안을 민란으로 보느냐 교난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발단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교안의 전과정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시기별 차이점

나 이 사건은 제주교안이 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던 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란의 발단을 4월 29일경 상무사원 宋希洙에 대한 천주교인들의 구타사건으로 본다거나²⁶⁾, 5월 6일의 천주교인과 상무사원의 충돌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²⁷⁾, 이것들도 教·民 간의 단순한 분쟁 이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미 金洋植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주민란의 발단은 5월 5,6일경 대정군민의 民會였던 것으로 보여진다.²⁸⁾ 민란참여세력의 바뀔이 총징약되어 있는 민회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민란의 원인,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민회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민회를 중심으로 민란의 원인,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까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민회의 대표자였던 '삼의사'의 활동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삼의사' 가운데 민회와 처음으로 연결된 자는 오대현이었다. 그는 대정군의 향장이었는데, 민회가 있기 전에 천주교인과 개인적인 분쟁을 겪었다.²⁹⁾ 이로 말미암아 그가 소속되어 있는 상무사의 역원들과 천주교인들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5월 5일) 이와는 별도의 민회가 대정군 右面(현대정읍)주민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이 민회에서는 주로 雜稅의 過徵으로 대표되는 세폐의 시정을 관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호소단의 장두로서 오대현을 내세웠으나, 그는 鄕任의 지위에 있다는 핑계로 관아에 피신하여 버렸다.³⁰⁾ 결국 이 민회는 대정군수 채구석의 曉諭로 해산되었으나, 3일 후(5월 8일)에는 대정군 左面(현 中文面)의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는 단순한 천주교인과 지방관리·토착주민 사이의 분쟁사건과 본격적인 민란과를 구별하여 이해하지 못한 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소한 분쟁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교안이 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민란의 원인과 발단은 규명되기 힘들어 질 것이다.

26) 金泰能, 앞의 논문 참조.

27) 『續陰晴史』光武 5년 5월 8일조 참조.

28) 金洋植, 앞의 논문, p. 138 참조.

29) 주 27)의 기록과 『官報』, 강우백의 진술 참고.

30) 『全羅南北來案』과 『官報』, 오대현의 공술 참조.

주민들이 중면(현 安德面)의 주민들과 더불어 民會所를 설치하여 대정군수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³¹⁾ 이들은 이번에는 군수의 효유에 응하지 않고 제주군 龍水理에서 합세한 주민들과 더불어 관아에 피신해 있는 오대현을 색출하여 장두로 내세웠다.³²⁾ 이때 회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까지 정소운동의 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西來民과 東來民으로 나누었는데, 서래민의 장두에는 오대현, 동래민의 장두에는 강우백이 나서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강우백이 민란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다. 旌義郡守金熙胃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동래민들은 정의군 右面(현 西歸浦市) 好近·法遷里의 里綱등을 위협하여 每村마다 男丁 백 명씩을 이끌고 나오게끔 하였다.³³⁾

이들 회민들은 頭毛·翰林 등지에 민회소를 두고서 州城으로 항할 준비를 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濟州郡守 金昌洙는 민회소를 찾아가서 효유의 목적으로 民弊를 열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회민들은 13개조의 폐단을 제시하였다. 이 폐단의 내용은 앞서 대정민회소에서 제시한 세폐의 내용과 더불어 당시 민란참여자들의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로써 민란 발생의 핵심적 원인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全羅南北來案』에 수록되어 있는 폐단의 내용은 주로 봉세관의 잡세 濫執과 교인들의 작폐에 관한 것이지만, 세폐에 더욱 비중이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정민회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5개조 가운데 다음의 3개 조항이 당시 대정군의 貧農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 ㄱ. 有主場田之出舍音奪耕也
- ㄴ. 納稅公土之更執也
- ㄷ. 茅草與青草之執稅也

31) 『全羅南北來案』참조.

32) 주 30)과 같음.

33) 주 31)과 같음.

34) 이영훈,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과 경제사회구조(『제주항쟁』창간호, 1991) 참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주도의 농민들은 해안가의 소규모 토지경영 말고도 中山間지대의 牧場田과 火田을 개간하여 갔다. 특히 빈농들은 자기소유지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목장전과 화전 경작에 나섰다. 또한 1894년의 貢馬制度 폐지 이후 목장토의 개간은 더욱 활발하여졌다. 이와 같은 개간지는 법제적으로는 국가소유지이지만, 영구경작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실제상으로는 民有地나 다를 바 없었다.³⁴⁾ 위 사료에 나오는 ‘有主場田’은 이와 같은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⁵⁾ 그런데 빈농들의 ‘有主場田’의 경작권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은 이들의 생존기반을 없애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위의 사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牧場田·官屯田 등의 ‘納稅公土’에 대한 조세 수탈과 茅草田³⁶⁾·靑草田³⁷⁾에 대한 執稅는 ‘有主場田’의 奪耕과는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³⁸⁾ 특히 대정군 중면 지역은 빈농들의 화전경작이 활발하였던 곳으로서, 화전세, 장세 문제로 19세기 후반 대규모의 민란이 발생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정군 중면과 좌면의 주민들이 1901년에 와서 민회를 가져서 이와 같은 민폐를 제시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즉, 제주교안이 민란으로 치달았던 주요원인은 단순한 세폐와 교폐가 아니라 대다수 빈농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버린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주체는 봉세관과 그와 결탁된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이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되지만, 『全羅南北來案』에 기록된 한림민회소에서 제시한 13개조의 폐단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 조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ㄱ. 民人의 先執納稅하는 公土을 自擇稅所로 差出舍音奪耕也
- ㄴ. 以教人出舍音하야 威脅討索야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민란의 성격이 반천주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 수

35) 李基範 등의 訴狀, 『皇城新聞』元武 5년 6월 22일 雜報, 黃기淵의 보고참조.

36) 제주방언으로 새밭이라고 불리운다. 새는 주로 초가지붕을 잇는 데 쓰였다.

37) 제주방언으로 출밭이라고 부른다. 출은 소나 말에게 먹이는 풀이다.

38) 「全羅南北道各郡訴狀」에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참고하여 보면, 당시 목장전의 소유권·경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극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림민회소 단계까지만 해도 교회측에 대한 전면전의 성격은 띠지 않았다. 민란참여세력의 무장화, 즉 민군화는 여러 자료에서도 지적되듯이, 5월 14일 교회측에서 민회소를 선제공격하여 오대현을 비롯한 6명의 민회 주도자들을 잡아들이고 대정성에서 인명을 살상하였던 데서 이루어졌다.³⁹⁾ 이때로부터 민회 세력은 교인들에 대한 전면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대현을 대신하여 이재수가 강우백과 더불어 西陣(西道軍)과 東陣(東道軍)으로 나누어 지휘하게 됨으로써, 그는 민란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재수가 서진의 대장으로 나서기 전까지의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란기』를 보면, 이재수가 민란에 가담한 동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는 민란에 가담하기 이전에 대정군수 채구석과 함께 정의교당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吳信洛의 시체檢案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이때 이재수는

무릇 天主教勢力에 逼하여 敢히殺人正犯을 拘得치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在守는 義憤의피가풀어 雙拳을 經營하였섯다 그러나이때는 오히려 門地를尊重하는 時代이었다. 그래서 在守는 一個下邑官隸로 人望을 엇지 못하고 憤忿한 精神만 激勵하더니……

라고 있듯이, 분노를 느꼈으나 미천한 신분이었으므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민회가 소집되어 오대현과 강우백이 중심이 되어 정소운동을 전개하여가자 그는 오대현의 부하로 민란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측의 한림민회소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대현이 잡혀 버리게 되자 이재수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란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때에 在守는 吳大鉉麾下에서 斡旋하였스나 姜尙主將의 柔弱함을 自來不服하더니 姜尙主將이 賊黨의게 被擄하고 軍衆이 解體하게 되었다……在守에 姜遇伯과 趙士生 吳大憲(吳大鉉의兄) 등으로부터 誓天挿盟하고 捲土重來의 壯圖로 다시 大靜으로向하여 散亡된 餘衆을 收拾하고 鄉邑과 妨曲에 號召傳檄하니 四方人民이 더욱 憤激하여 一時에 掌을 附하며 響應하는 者 不畧計치이러나며 구름갓치몽쳐든다

39) 『全羅南北來案』 참조.

즉, 이재수가 평소 오대현의 은진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오대현이 교회측에 붙잡힌 것을 계기로 하여 민군의 대표자로 나섰다. 그가 민군의 대장으로 대두되자 민란도 무력에 의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작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군을 동도군과 서도군으로 나누어 도 일원의 주민들을 다시 규합하여 제주성으로 향하게 하였다.⁴⁰⁾ 이재수는 친히 서도군의 대장이 되었는데, 서도군은 대정군의 주민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정군에는 화전민을 중심으로 한 빈농층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서도군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이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재수와 같은 인물이 민군의 대장으로 추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민란의 전개과정에서도 확인되지만, 동도군보다 서도군이 교인 살해를 주도하였던 점 프랑스 군대가 태도하였을 때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던 점 등은 이재수를 비롯한 서도군의 강경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하겠다. 민란이 진압된 후 서울로 압송되어 平理院에서 교수형의 언도를 받은 이재수는 최후진술을 할 때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⁴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의사’는 서로의 처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민란에 참여한 동기도 달랐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던 도민들을 대표하여 정소운동의 장두로 나섰다. 민란이 무력투쟁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에는 민군의 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민군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제주도민들은 이들을 높게 평가하여 義士로 호칭하여 왔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斥邪論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제주유림들에게는 매우 강하였다고 보여진다. 『란기』를 기록한 김석익도 그 서문에서

“光武年間 西教流入濟州……彼宣教師之恃其國強委行威○ 莫之鉗制 由是逃亡無賴 威來投教 數年間其徒 遍滿一島 幻成賊窟 咆囂陸梁 氣焰可畏 於是吳大鉉首唱聲討 姜遇伯踵而味之 檄文所到 踴躍響應 勢如迅雷 于時李在守起身寥微 倚于大鉉部下 事卒未集 而大鉉爲賊所獲 在守倡言……搜捕賊黨 盡殲之 實東亞有史以來之所未有也”

40) 『란기』 참조.

41) 『官報』, 이재수의 공술 참조.

라 하여, ‘삼의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너무 반천주교적인 입장을 고수한 나머지 교안의 원인, 특히 민란의 핵심 원인을 간과하여 버린 느낌이 든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민란의 주요 원인은 세폐, 토지경작권 침탈 등 도민생존권의 위협이었지 처음부터 교회측과 전면적으로 대립할 소지는 희박하였다. 이재수의 최후진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姜番三郡之民不耐稅弊 齊會伸訴 何關於教人 而奪軍器 陷城放家 此非逆賊乎 矣等
所 殺乃逆賊也 非良民也 則雖死無冤云

이라고 하여, 이재수 자신도 세폐를 시정하려던 움직임에서 교인들의 개입으로 달미암아 교인들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4. 맺 음 말

제주교안은 그 전개과정에서 민란으로까지 확대되어감으로써 다른 지역의 교안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따라서 교안의 성격도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교안의 원인도 불투명하여질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당시 민란참여세력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특히 민란을 주도하였던 이재수·오대현·강우백 등 ‘삼의사’에 주목하여 보았다. 그 결과 민란의 주요원인은 단순한 교폐·세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정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 화전민들의 목장토 소유권·경작권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빈농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데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이러한 빈농들이 중심이 되어 무력항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계층을 西道軍(西陣)으로 편성하여 주도 하였던 이가 이재수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서도군은 강우백·오대현 등이 이끌었던 東道軍과는 달리 비타협적인 강경노선을 고수할 수 있었다.

42) 李齊鎬의 詩文 참조.

한편 '삼의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란 초기에는 반천주교적인 입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봉세관과 결탁된 일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체 교회에 대한 배격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교회측의 민회소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인해서 민란이 교회측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01년 제주교안은 빈농층의 생활기반을 탈취하여 버린 데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란적 성격이 강하며, 민란의 전개과정에서 교회측에 대한 전면전으로 확대됨으로써 반천주교적 운동으로도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것이다.